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17면)

송파구의회, 석촌호수 인근 도심복합개발 현장 간담회

“주민 신뢰 확보가 핵심”

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는 지난 14일 오전 석촌고분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후화된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도심복합개발 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석촌고분역 일대는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약 2,900세대 규모의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측은 “일부 구역의 주민 동의율이 60%에 달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탁 방식을 도입하고 향후 동의서 장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설명했다.

손병화 의장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운영위원들을 격려하며 “무엇보다 주민과의 신뢰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의장은 “신탁 방식이나 재산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투명하게 해소하고, 외부 투기 세력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정확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송파구청도 재개발·재건축 전담조직



손병화 송파구의장이 석촌고분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TF)을 신설하는 등 행정적 의지가 매우 높다”라며, “우리 의회 역시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명품 주거단지를 향한 구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홍준성 기자

/ roff1116@naver.com